

중국 이번엔 ‘맨발·콩초 절임식품’ 폭로

CCTV ‘썬차이’ 제조공장 고발 ‘알몸 배추’ 이어 또 위생 논란 중국내 유명 식품 브랜드 납품

지난해 상의를 벗고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유출돼 ‘알몸 배추’ 논란이 일었던 중국에서 또다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 식품이 제조되는 장면이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의해 폭로됐다.

관영 중앙(CC)TV는 지난 15일 소비자의 눈을 맞아 방영하는 고발 프로그램 ‘3·15 완후이’에서 후난성의 한 썬차이 제조공장의 비위생적인 생산 과정을 방영했다. 썬차이는 중국 절임식품의 하나로 갖이뒤 배추를 소금 등 양념과 향신료를 이용해 절인 뒤 발효시키는 식품이다. 중국인이 즐겨 먹는 식재료로 썬차이 컵라면 등이 중국 전역에서 소비되며, 해외로도 수출된다. 이날 폭로된 영상에는 썬차이를 만드는 과정에

서 직원들이 맨발인 채로 썬차이 절임 통에 들어가고, 피우던 담배꽂이를 버리는 등 비위생적인 모습이 담겼다. 또 포장하기 전 썬차이를 비닐봉지나 포대에 담아 방치하고, 일부는 더러운 바닥에 그대로 쏟아두기도 했다.

CCTV는 이 업체 외에도 제조 환경이 비슷한 다른 썬차이 제조 업체 3곳도 함께 공개했다.

이 업체들은 중국 유명 식품 브랜드인 캄스푸를 비롯한 주요 식품 기업과 상하이, 후베이, 쓰촨 등 전국 식품 유통회사에 썬차이를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관계자는 “규격화한 절임 작업장이 있어 그곳에서 생산되는 썬차이는 불순물이 거의 없지만, 모두 수출용 제품”이라며 “제조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생산된 썬차이는 불순물이 섞일 수 있지만, 발각이 되도 1천~2천위안(19만~38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면 된다”고 말했다.

캄스푸 측은 방송 이후 성명을 통해 “문제가 된 업체와 모든 협력 관계를 중단하고, 문제가 된 썬차이가 사용된 제품을 모두 봉인했다”면서 “식품

관리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중국 네티즌들은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어제도 썬차이 컵라면을 먹었는데 생각만 해도 토가 나온다”, “언제까지 식품 위생을 격정해야 하나”, “매년 주기적으로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중한국대사관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방송에 나온 썬차이 공장의 제품은 한국에 수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중국 해관총서(세관)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에서는 지난해 3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 배추를 제조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자 식약처가 “수출용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영상에는 포크레인으로 배추를 운반하거나 상의를 벗은 남성이 구덩이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장면이 등장해 수입 감치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줬다. /연합뉴스



국가부도 위기 성토했던 스리랑카 시위대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대통령 관저 앞에서 15일(현지시간) 야당이 주도하는 시위대가 연료 부족과 식품 가격 상승을 초래한 경제 위기에 항의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국가 부도 위기를 면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미 인·태사령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16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규탄했다.

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한국, 일본을 비롯한 여내 동맹국·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미국은 이같은 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이 추가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이어 “이번 발사가 미국 인력, 영토, 동맹국들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9시 30분께 평양 수안 일대에서 미확인 발사체를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최근 두 차례 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시험 발사가 이뤄진 순간인 점을 고려해 ICBM 관련 시험 발사인지 여부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HK방송도 이날 오전 9시 30분이 조금 넘는 시각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긴급 보도했다. /연합뉴스

유엔 “아프간 2300만명 극심한 굶주림 시달려”

“국민 70% 기초식품 못 구해”
‘기아 직면’ 900만명이 더 늘어

탈레반 집권 후 최악의 경제난이 닥친 아프가니스탄에서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는 국민의 수가 2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하야마 통신 등 아프간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라미즈 알라크바르브 유엔(UN) 인권문제 부총장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탈레반이 재집권하기 직전인 작년 7월에는 ‘극심한 기아’에 직면한 인구의 수가 1400만명으로 조사됐는데 불과 8개월 만에 900만명이 더 늘었다. 아프간의 인구가 400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국민 가운데 약 58%가 아사 위기에 처한 것이다.

알라크바르브 부총장은 아프간 전체 인구의 95%가 충분한 먹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이 가장인 가정은 거의 100%가 이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WB)도 이날 비슷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은행이 아프간복지조사기관에 의뢰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기초식품이나 필수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조사에서도 탈레반 집권 후 현재 상황이 매우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에는 이 수치가 35%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식사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답한 가구도 작년 7~8월 25%에서 거의 50%로 늘어났다.

아프간은 수십 년간 내전이 계속되면서 정부 재정 자립 능력이 사실상 고갈된 상태였는데 탈레반 재집권 후 만성적인 외화 부족이 더 심해졌다. 여기에 가뭄 등 자연재해까지 겹치며 전례 없는 경제난에 직면했다. 최근 국제기구 등의 구호가 재개되고 있지만 경제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 아프간재건특별감사관실(SIGAR)은 지난달 아프간의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50달러(약 44만원)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프간의 1인당 연간 국민소득은 2012년 650달러(약 81만원)에서 2020년 500달러(약 62만원)로 줄어든 상태다. /연합뉴스



울음바다로 변한 우크라이나 전사 군인 장례식장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의 한 교회에서 열린 전사 군인 4명의 장례식에 참석해 가족과 친지들이 관을 부여잡은 채 오열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13일 폴란드 국경 근처에 있는 아보리우의 우크라이나군 훈련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이들을 포함해 최소 35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바이든, 내주 유럽 방문...나토·EU 정상회의 참석

러시아 제재·우크라 지원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각각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동맹국 지도자들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 중인 역

지 및 방어 노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EU 정상회의에 참석해 러시아 제재 부과,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제공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을 직접 만나 현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평가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엔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특별

정상회의의 소집 사실을 알린 뒤 “러시아의 침공,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 나토의 역지력과 방위의 강화에 대해 다룰 것”이라며 “이 중대한 시기에 북미와 유럽은 계속해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토는 30개국, EU는 27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은 이번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한 뒤로는 처음이다. /연합뉴스

장성 토지(매매 분양)	상가매매(상무지구)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p>1 200평 (27) 2 300평 (40.8) 3 160평 (21.76) 4 161평 (21.5) 5 280평 (37.4) 6 150평 (20) 7 158평 (21.2) 8 150평 (20) 허가 110m (208평) 2 6m 도로</p>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휴,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p> <p>광주 남구 행암동(임야)▶ 감정가 97억 -> 54억 (2/23)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3억7천 -> 3억 (2/23) 북구 일곡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1천 -> 4억8천 (2/23) 북구 본촌동(근린시설)▶ 감정가 15억 -> 11억 (3/2) 광산구 소촌동(농지)▶ 감정가 4억4천 -> 3억1천 (3/3)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2억5천 -> 1억7천 (3/4) 광산구 삼거동(임야)▶ 감정가 3억9천 -> 1억7천(3/15)</p> <p>전남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감정가32억 -> 18억 (2/21)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감정가 25억 -> 11억 (2/28) 나주시 금천면(주택)▶ 감정가 4억1천 -> 2억9천 (3/15) 나주시 다도면(주택)▶ 감정가 9억9천 -> 5억5천 (3/15)</p> <p>시외 당진시 송산면(다가구원룸)▶ 감정가 4억8천 -> 8천 (2/15) 서울특별시 중랑구(근린주택)▶ 감정가 17억 -> 8억8천(3/2)</p>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p>	<p>010-6670-9800</p>	